

“혼다코리아, 녹·부식된 차 알고도 팔았다”

신형 CR-V·एको드 4000여대 시중 유통 YMCA “매직 마킹 흔적…하자 고의 은폐”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주장도 허위 의혹 교환환불 거부…녹 제거 방청 뒤 합인판매 “소비자 기만행위…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자동차 혼다코리아가 자사 대표 제품인 신형 CR-V와 에코드 차량에서 발생한 녹·부식 발생 이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결국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혼다코리아가 차량을 판매하기 전 차량의 녹·부식 여부를 인지하고서도 고의로 이를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것이 YMCA 자동차안전센터



혼다코리아의 신형 CR-V와 에코드 차량에서 발생한 녹·부식 발생 이슈가 결국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에 이르렀다. 사진은 CR-V에서 녹이 발생했다는 증거 사진.

의 주장이다. 상품(자동차)의 하자를 은폐하고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혼다코리아는 8월까지 녹·부식 문제 차종을 4000여대(CR-V 1000여대, 에코드 3000여대) 판매했다. 그동안 혼다코리아는 녹 발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녹·부식

발생 부위 곳곳에 매직으로 마킹한 흔적이 존재하고, 차량 출고시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장착 작업이 이루어지는데(거의 모든 차량 대상), 이때 녹·부식을 발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혼다코리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다코리아가 국토 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했다고 말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혼다코리아 측은 5일 현재까지 녹발생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차량 교환이나 환불 요구 등을 거절하고 있으며, 녹·부식 문제가 불거진 차량을 녹제거와 방청 처리한 뒤 최대 500만원까지 합인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의점 먹거리 ‘고정관념을 깨다’

‘다이어트 선식’ 등 웰빙간편식 러시 건강식 및 저염식단 먹거리 수요 겨냥 도시락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진화

유통 ‘고정관념을 깨다.’ 편의점의 요즘 먹거리 트렌드다. 편의점 식품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이어트와 건강을 테마로 한 웰빙 간편식이나 가격보다 맛과 품질에 중점을 둔 프리미엄 도시락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가루에 물만 부으면 끝, ‘우주인 식품’ 인기**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웰빙 간편식의 불이다. GS25는 비만클리닉 365MC와 손잡고 ‘다이어트 선식’ 2종을 출시했다. 통곡물 가루에 멀티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이 함유해 영양을 챙기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제품이다. GS25 측은 “선식 가루가 담긴 용기에 물이나 우유를 부어 흔들면 된다”며 “간편히 다이어트를 원하는 고객의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CU가 랍노쉬, 인테이크와 손잡고 분말형 식사 대용품 4종을 내놓은 것도 간편식에 대



서울 남대문로 세븐일레븐 중국대사관에서 모델들이 뷔페처럼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신개념 도시락 ‘내맘대로 도시락’을 선보이고 있다. 편의점 먹거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을 테마로 한 웰빙 간편식 및 가격보다 맛과 품질에 중점을 둔 프리미엄 도시락 출시 등 고정관념 깨기에 한창이다.

사진제공 | 세븐일레븐

한 소비자의 선호를 겨냥한 것이다. 콩, 현미 등 곡물을 기본으로 만든 가루에 물, 우유, 두유 등을 넣어 흔들어 마시는 식품으로 최근 ‘우주인 식품’으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다. 미나스톱은 ‘두부산적&샐러드 도시락’을 내놓았다. 나트륨 함량 490mg, 칼로리 580kcal로 저칼로리 식단을 추구하는 20대 여성 고객과 건강에 민감한 30~40대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이밖에 세븐일레븐은 기존 비빔냉면에서 면 대신 실곤약을 넣어 칼로리를 대폭 낮춘 ‘비빔곤약면’ 도시락을 출시했다.

편의점 업체가 다이어트와 건강을 테마로 한 먹거리를 출시하는 것은 다이어트 먹거리

를 찾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정작 이들을 겨냥한 상품을 구매했을 곳이 부족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에 대한 고객의 관심과 저염식단을 찾는 수요가 늘어 가법게 줄길 수 있는 소재들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를 선보이게 됐다”고 했다.

●**도시락, 일상정식부터 뷔페스타일까지**
편의점의 대표 상품인 도시락도 이제는 맛과 품질에 중점을 둔 프리미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GS25는 일본 가정식 콘셉트 ‘심아식당’을 내놓았다. 흰 쌀밥에 된장연어구

이, 닭튀김, 새우튀김, 어묵구이, 삶은 완두콩, 명란마요, 갯절임, 밀푼유돈가스, 돼지불고기, 계란말이 등 11종의 일

본품 반찬으로 구성됐다. 세븐일레븐은 뷔페처럼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신개념 도시락 ‘내맘대로 도시락’ 시리즈를 출시했다. 밥류와 반찬류가 각 5종씩 총 10가지 메뉴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 기호에 맞춰 밥과 반찬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CU는 한 패키지에 두 가지 메뉴를 담은 ‘나혼자 탕,짜’와 ‘유부김밥 세트’ 등 음식점의 세트 메뉴를 도시락에 응용했다.

이런 변화는 수년간 고속 성장하던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전략으로는 매출 확대에 한계를 맞았기 때문이다. 도시락 제품이 마진이 높은 만큼 단가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메뉴를 다양화하고, 고급 원재료를 사용해 품질면에서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품업체가 가정간편식 개발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만큼 차별화하지 않으면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진 영향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5일

코스피지수	2326.62	↓	-3.03
코스닥지수	648.75	↓	-2.14
日 닛케이 지수	1만9385.81	↓	-122.44
中 상하이 종합	3384.32	↑	+4.7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78		0
환율 (원·달러)	1130.50	↓	-1.0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8466.24	↓	-159.84

오늘의 얼굴

서경배 회장 “고객중심 우직하게 지키자”



서경배(54·사진)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혁신’을 통한 ‘고객중심 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서 회장은 5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창립 72주년 기념식에서 “세상에 없던 혁신 상품을 만들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경험을 선사하며, 디지털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모두 고객중심을 위한 길이며, 우리가 고객중심의 대원칙을 우직하게 지켜 나간다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원대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객의 요구 탐색, 테스트 앤 러н(Test&Learn) 자체 등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며 ‘고객중심’ 대원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정정욱 기자

비즈 TALK TALK

●**“한미FTA 협상 관련 여러 카드를 갖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한미FTA 협상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5일 서울 강남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지금이 정비구니 물가 안정과 수급안정의 골든타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4일 새벽 서울 송파구 농협가락공판장을 찾아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직원을 격려하면서)

데이터 경제

싸이월드 부활, 직장인 설문조사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토종 SNS인 싸이월드의 부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4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가 “싸이월드 부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찬성하는 이유로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싸이월드만의 매력”이 있어서”(38.1%), “다른 SNS보다 재밌어서”(2.1%), “싸이월드의 부활을 기다렸기 때문에”(0.5%) 순이었다.	

● 싸이월드 부활에 찬성하는 이유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59%
싸이월드만의 매력이 있어서	38.1%
다른 SNS보다 재밌어서	2.1%
싸이월드 부활 기다렸기 때문	0.5%
● 싸이월드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	
토해나와 SNS가 켜지는 게 불편	41%
예전 인기를 누리지 못할 것 같아	35.2%
서비스 재개해도 곧 삭제될 것 같아	19.1%
더 나은 SNS가 많아서	4.8%

독일 가을 축제 ‘옥tober페스트’, 서울서 즐겨요

16일 그랜드힐튼서울 ‘2017 옥tober페스트’

독일을 대표하는 가을축제가 한국을 찾아온다. 16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서울에서 ‘2017 옥tober페스트 인 서울’이 열린다.

9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16일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옥tober페스트는 매년 75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삿포르의 눈축제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로 불린다.

200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2017 옥tober페스트 인 서울’에서는 뮌헨의 대표적인 맥주인 브루어리 아인거 비어와 그랜드힐튼서울의 탁인한 셰프팀이 야심적으로 선보이는 옥tober페스트의 대표 축제 음식 슈바인학센(Schweins haxen)과 독일식 수제 소시지 등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이번 그랜드힐튼서울 옥tober페스트에서는 농축산분야 세계 최초로 유엔 기후협약 실천 인증을 획득한 칠레 아그로수퍼의 친환경 프리미엄 돼지고기를 슈바인학센과 수제 소시지의 식재료로 사용한다.

행사는 오후 6시부터 그랜드힐튼 서울의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시작되며 입장은 15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현대차, 중소형 트럭 ‘HD36L’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가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7 모스크바 국제상용차 전시회’에서 수출 전략형 중소형 트럭 ‘HD36L’(사진)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러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출시된 ‘HD36L’은 현대자동차가 해외 상용차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소형 상용차 라인업을 확대해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출 특화형 전략 차종이다. ‘HD36L’에는 A2.5 엔진과 6단 변속기가 탑재돼 130마력(ps)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기점으로 수출 전략형 중소형 트럭 HD36L과 신형 마이티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중남미, 아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상

용차 판매 지역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제15회 예스셈 올림피아드 23일 개최

제15회 예스셈 올림피아드 대회가 9월23일 각 지역별로 열린다. 예스셈은 주산식암산학을 활용해 수학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통해 수리능력의 향상과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 전반적인 수학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학습 프로그램이다. 2003년부터 매년 열리는 예스셈 올림피아드 대회는 주산식 암산학습 효과를 통해 크게 늘어난 아이들의 실력을 볼 수 있다. 이번 대회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생까지 모두 약 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수준에 따라 종합 부문(주산암산+플래시암산+수학)과 주산암산부문(수학제외)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상, 최우수상 등 성적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메달, 시상품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예스셈 홈페이지(www.yessem.net)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용운 기자